아바타 열풍 이후… SF게임이 몰려온다

퀘이크워즈 온라인·스틸독·스타2 등 후속작들 기대

'아바타' 열풍 이후 SF(공상과학) 게임들이 폭주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PC게임 시절부터 SF장르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던 '스타크래프트'와 '퀘이크'가 다시 한 번 포효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 하지만 국내 게임시장에는 후속작이 전작보다 부진한 '소포모어'(sophomore jinx·2년차징크스), SF 1인칭 슈팅(FPS)은 흥행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따라서 이 게임들이 묵은 징크스들을 털어버릴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만 하다.

■ '최초'에서 '최고'로… SF 슈팅 '퀘이크워즈 온라인'

26일부터 3일간 2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에 돌입하는 '퀘이크워즈 온라인'은 세계 최초로 FPS를 개발한 이드 소프트웨어와 국내 온라인 FPS 게임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드래곤플라이의 역량이 집대성 됐다. 2060년 외계인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외계생명체 스트로그(STROGG)와 지구방위군(GDF)이 벌이는 세기말적 미래전쟁을 그리고 있다. 기존 FPS 게임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독특한 SF 설정은 게임의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다. 분대 단위 전투를 전쟁개념으로 확장해 전략적인 재미를 극대화 했다.

■ '큰놈' 잡는 '추노꾼'… SF 레이싱 '스틸독'

실물모형의 캐릭터카를 전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스틸독'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SF 메카닉 차량들의 레이싱 게임이다. 200년 후 인류의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다. 레이싱 특유의 빠른 속도감과 거친 액션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차량에 물리엔진을 적용,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레이싱은 차량을 움직이는 요소에 불과하다. 미사일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상대 차량을 격파하는 것이 목표다. 깔끔한 그래픽도 눈에 띈다.

■ 또 다시 온 '21세기 스타'… SF 전략시뮬 '스타크래프트2'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는 설명이 필요없는 초대형 SF 블록버스터 게임. 최근 비공개 시범 테스트로 '스타크래프트' 열풍을 재현해 내며, 소위 '소포모어 징크스'란 말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거의 모든 게임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전작보다 상성이 분명한 '테란', '저그', '프로토스' 3종족에 새로운 유닛이 더해져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매칭시스템·게임리그·방송중계·마켓플레이스가 모두 포함된 혁신적인 배틀넷이 새롭게 선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봉철기자 janus@nocutnews.co.kr

北, 금강산 관광재개 강온 양면 전술

'남측 부동산 조사 설명회'서 내달 1일 시한 특단의 조치 '경고'… "신변안전 보장은 문서로 약속"

북한 특유의 강온 양면 전술이 25일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열린 '남측 부동산 조사 설명회'에서도 보여졌다.

북측은 이날 현대아산 등 방북한 남측 인원들을 상대로 다음달 1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그 때까지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요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최요식 수석부회장은 방북 후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1일까지 남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이경진 과장의 말을 전했다. 최요식 부회장에 따르면, 이경진 과장은 또 이번 부동산 조사 배경에 대해 "관광 중단 장기화와 (사업)방치에 따른 조사이지만 재개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관광총국에서 내릴 것이지만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북한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실제로 남측 소유의 부동산 몰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그러나, 상황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기보다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도 내비쳤다.

남한이 '선 신변안전 보장, 후 금강산 관광재개'의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 "문서로도 신변안전을 약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조사 설명회에 참여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남측이 요구하는 신변보장은 문서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변안전 보장을 문서로 확약할 수 있다는 입장은 관광 재개의 최대 걸림돌인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북측이 한발 더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남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현대아산과 투자업체 관계자 등이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한 뒤 돌아왔다. 사진 왼쪽 첫번째가 김한수 현대아산 홍보부장, 두번째가 안교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 남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그 기간 동안 남측 정부가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답을 가져오길 바라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

한국전쟁 참전 개발도상국 '중점지원'

경제발전경험 우선 전수

정부는 KSP 즉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중점지원 국가로 개발도상국인 한국전쟁 참전국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전쟁 전쟁 60주년을 맞아 우리가 어려울때 도와줬던 나라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담고 있다.

KSP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 또 실패사례까지 개도국에 전달함으로써 해당국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밀착자문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에 따라 지금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 올해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돼 있다.

중점지원국이 되면 3년 동안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수립과 정책의 실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해당국 공무원 등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점지원국에 선정된 4개 나라 외에 내년에 11개 나라를 중점지원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문기자 mun8510@cbs.co.kr

LIG건설, '중랑숲 리가' 분양… 투자자도 '기웃'

LIG건설이 서울시 중랑구에 84㎡(33평), 110㎡(43평)등 10개 타입 381가구 규모의 'LIG중랑숲 리가'를 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는 18만㎡(5만여평)규모의 중랑나들이숲이 조성되고, 일대 지역을 재정비하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이며 입주는 2012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967-5116 라영철기자

"프로야구 관중 수 늘면 주가 오른다"

경기를 판단할 때는 흔히 공식적인 경제 지표들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생활지표들이 훨씬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다. 일례로 립스틱 판매량이 경기 불황의 정도를 나타내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실제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쓰레기통과 세탁소를 뒤졌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세탁물을 맡기는 사람이 증가하면 경기가 개선될 조짐이라는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프로야구 관중수가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은 25일 리포트를 통해 "주식시장 전망은 야구장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원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프로야구 관중 증가율과 코스피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된 지난해를 제외하고 사실상 궤적을 같이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 연구원은 또 "올해 프로야구는 시범경기부터 관중수가 심상치 않다"며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시범경기에는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관중이 몰려 정규시즌의 흥행을 예고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모호하다"고 밝히고 "변동성에 뛰어들기보다 한발 떨어져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증시주변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임미현기자 marial@cbs.co.kr

비즈니스 브리핑

■ 서강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는 서강대 초대 총장인 존 P. 데일리 신부와 영화감독 박찬욱씨 등 4명을 '서강희년상'(Sogang Jubilee Award)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봉사종교 부문에서 데일리 신부, 정치경제 부문에서 이성민 엠텍비전 대표, 교육학문 부문에서 윤경병 서강대 화학과 교수, 문화예술 부문에서 박찬욱 영화감독이 각각 뽑혔다.

■ 국순당은 경상북도와 함께 주류전용쌀인 '설갱미'를 계약재배하는 설갱미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영주농협(45ha), 안정농협(20ha), 서안동농협(52ha)과의 약속재배를 통해 주류전용쌀인 설갱미 재배단지를 117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 1일부터 여신심사 시 외부전문기관의 환경평가 결과를 기업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여신금액 80억원 초과 기업의 신용평가에 환경평가 결과를 반영, 우량 환경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환경관리에 취약한 기업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김정옥기자